

UPASIKA PRAISED CONTENTS

- 02 발행인 칼럼 | 이기향
문화포교를 통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이미지 제고
- 04 불교와 여성 | 옥복연
캐런 버라드 『신유물론x페미니즘:몸,물질,생명』 서평
- 06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이영희
곡성 태안사 각초 주지스님을 찾아서
- 09 108인 기획 인터뷰 | 전영숙
맑고 바르게,은은한 향기로 함께 나아가는 삶 | 김외숙 2차 108인
- 12 현장스케치 | 사무국
청로몽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만드는 작품집, 11인 11색
- 16 특별활동보고 | 이영주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2024 '새활용(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
- 20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 최혜경
가지요리
- 22 사무국 소식
- 25 산하기관 센터 소식
- 29 회원 동정
- 30 재정동참 현황

우바이예찬

2024년 91호

[발행인] 이기향 [발행일] 2024년 10월 31일

[편집위원장] 향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김보미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047)서울시중로구자하문로30길20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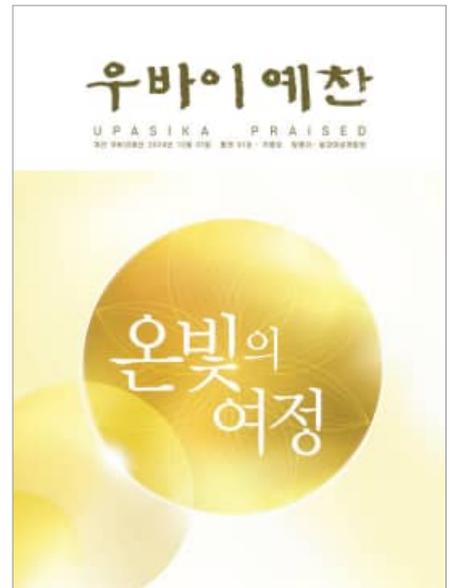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 이미지/제작 이유림]

‘온빛’은 붓다의 자비와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깨달음의 빛을 상징하며 이 깨침의 빛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상징성이 담겨있습니다.

표지 이미지는 은퇴한 여성들이 사회적 연대와 지원이 필요한 20, 30대 청년들을 위해 90일 이상을 협업하며 제작한 예술작품들을 선보이는 비 예술인들의 전시 <온빛의 여정: 회향의 빛>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문화포교를 통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이미지 제고

가을은 문화가 인류를 살찌우는 계절입니다. 올 가을엔 유난히 개발원에 문화 소식이 가득합니다. 문화는 삶과 불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형성할 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는 불교 포교에 아주 유용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의 정체성을 강화시켜가는 훌륭한 방편이 됩니다.

전시회 <온빛의 여정>, 불자 성악인 <4인 4색의 향연>을 통한 문화포교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일간 부처님의 광명세계를 장엄하고자 기획했던 <온빛의 여정>을 많은 사부대중을 모시고 여법하게 회향하였습니다. <온빛의 여정>은 '자비의 등불'과 '회향의 빛'이라는 불교의 핵심 주제를 국회의사당 갤러리에서 펼쳐보이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비구니회장 광용스님께서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가치가 청년과 시니어 세대의 서로 다른 꿈과 희망을 엮어내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결과물로 창조되었다며 축하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 현장에서는 진명스님과 지상스님의 축사와 격려사, 그리고 국회 정각회 회장단,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께서 축하하러 와주신 덕분에 여법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불사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우리는 선우와 수십 송이 연꽃을 피워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빛의 여정>전은 홍보·기획사 대표, 그리고 디자이너와 큐레이터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11차 108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빛어낸 멋진 결과물입니다. <온빛의 여정>을 성공적인 불교문화 콘텐츠로 탄생시킨 개발원의 우먼파워를 수희찬합니다.

또한 온빛의 여정 오프닝과 같은 날 저녁, 위즈덤합창단은 피꼬리 같은 음성을 대중에게 회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김양희 지휘자는 불교 성악인 4인 4색의 향연으로,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지휘자와 합창단의 뛰어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불교여성개발원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여 주신 위즈덤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개발원의 문화콘텐츠, 첫 수익 사업 『그대 향한길』 발원문집 발간

2023년 여름, 불교여성연구소는 할머니와 손주들을 위한 발원문 쓰기 강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연구소는 일곱 살 유치원생부터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108 여성 불자들과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 벽찬 감동, 찬란한 기쁨과 행복을 담은 결과물들을 선사와 엮어 예쁘게 책에 담았습니다. 권영순 선생님의 한지 삽화가 곁들여져 발원문의 울림이 더 큼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연구소장님과 연구위원, 지도위원 그리고 발원문 작가들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의 보현 행에 감사드립니다.

11월 6일, 문광스님께 드리는 빅 퀘스천! '재가여성불자들의 시대적 사명'

개발원이 종단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 행보를 걸어온 지 3년차를 맞이합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재가여성불자를 대표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개발원의 향방을 타진하는 절박한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유불선 삼학은 물론 어떠한 질문에도 두루 막힘이 없는 문광스님께 빅 퀘스천(Question)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께서 촌철살인의 답을 찾아내는 법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9월 말에는 서울 본원의 임원 여섯 분이 대구로 내려가 저희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대구·경북지부 결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열여섯 분의 지역 회원님들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통해 이정숙님을 대표로 선출하고 최대봉님을 총무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고하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서울 본원에 버금가는 대구·경북지부로 키워주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7일, 개발원은 20여 년간 의료봉사에 매진해 온 무량감로회에 차량을 지원하여 봉녕사 스님과 직원 100여 분의 무료건강검진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해 개발원과 MOU를 맺은 무량감로회에는 8분의 108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개발원 산하 생명존중운동본부 이순재 센터장님이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 반, 불교여성연구소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목은 <고려, 조선 여성불자들의 신행에 대한 역사적 조명>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108 여성불자들의 선배를 만날 수 있는 유익한 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4주년 기념식과 원장과 이사장 이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람과 감사, 그리고 격려가 교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회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발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신유물론×페미니즘: 몸, 물질, 생명』을 읽고

이 책은 '물질'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는 21세기 새로운 철학이론인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이 여성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는 페미니즘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몸, 물질,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유물론의 학문적 진화나 페미니즘에 과학기술의 적용, 몸과 재생산, 그리고 착취적인 자본주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짧은 지면상 신유물론적 페미니즘 이론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신유물론은 페미니즘적 사유의 확장

신(new)유물론은 '열등하고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던 물질을 새롭게 해석한다. 구(old)유물론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물질'로 보았고, 물질은 외부의 영향이 있어야 작동하는 죽어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신유물론은 모든 물질이 자신의 역량을 능동적으로 발휘함으로써 물질 그 자체가 능동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신유물론은 인간이 물질을 정복하거나 대상화하려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부정하는데, 이는 정신-남성-우등 vs 물질-여성-열등이라는 이분화된 가치체계를 전복시키는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페미니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압받거나 배제되어 왔던 자연이나 물질, 타자의 목소리 등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신유물론이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인간과 비인간은 타자와 관계하며 변화 능력을 가진 주체

신유물론에서 물질(몸)은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행위자성을 가진 '자기-조직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페미니즘과 '몸의 재형상화'로 만난다.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열등한 여성의 몸'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신유물론은 물질(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고전적 페미니즘을 비판한다.

브뤼노 라투르는 신유물론의 선구자로, 그는 여/남,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해체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삶은 모두가 수평적으로 계속 뻗어가는 리즘Rhizome으로 설명하며, 모든 존재는 다양한 타자들과 만나 자신을 변신시키기도 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위자로 존재한다는 '행위자 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을 강조한다. 이때 행위자는 상호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물질이나 개인의 고유성에 기초한 차이를 강조하며, 그 물질이 "-되기"를 위한 끊임없는 변신의 과정을 중시한다. 즉, 다양한 타자들과 만나 자신을 변신시키거나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여성-되기', '동물-되기', '타

자-되기' 등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여성-되기'는 여성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가진 긍정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변신하는 과정으로 본다.

인공두뇌를 가진 생명체인 '사이보그선언'과 인간-동물 공생자인 '반려종선언'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최초로 사이보그를 긍정한 도나 해러웨이는 성차별 없는 이상적 사회에 대한 희망을 사이보그와 결합시키는데, 예를 들면 자궁을 대체하는 인큐베이터는 여성을 출산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건강한 사이버섹스는 성매매나 전통적 성 역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쪽이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빵을 나눠 먹는 소중한 타자인 '반려종 선언'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많은 미생물과 같은 반려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공생 sympoiests한다고 본다.

인간의 몸은 수많은 박테리아와 균들이 살고 있는 '이종적 집합체'로, 수많은 존재가 내 몸속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조직이나 기관 등을 만들기에,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나 생성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은 '실뜨기'와 같은 관계망으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짝은 자라서 줄기와 잎, 열매를 맺고 다시 퇴비가 되는 순환과정을 겪는다. 해러웨이는 인류세가 인간중심이라면, 함께 죽고 사는 연대의 공간인 툴루세에서 반려종인 나는 내 몸을 구성하는 무수한 존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유물론 × 페미니즘적 사유는 불교페미니즘과 상통한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여성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교페미니즘은 신유물론적 페미니스트들과 많은 부분에서 용어만 다를 뿐 인식을 공유하기에, 불자라면 쉽게 이를 공감할 수 있다. 탈이분법적 인식론, 인간중심에서 벗어난 온존재의 고귀함, 비폭력과 자비, 연기(緣起)와 상호의존적 존재론도 유사하다. 또한 물질성과 몸의 재해석을 통해 여성의 몸(물질)이 수행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장소로 여성의 주체성을 재구성하는 등, 불교페미니즘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처럼 신유물론적 페미니즘은 인드라마의 그물처럼 연결된 지구 존재들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켰지만, 사회적 권력 구조나 불평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쉽지 않고, 인간의 책임성이 모호하며, 현실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은 있다. 신유물론 × 페미니즘은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러나 여성불자들에게는 특히 매력적인 이론이다. 🌸

곡성 태안사 각초 주지스님을 찾아서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태안사(泰安寺)는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와 대한민국 보물을 여러 점을 보유하고 있는 동리산문의 대표사찰로 신라 경덕왕 원년(724)에 혜철스님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선암사·송광사·화엄사·쌍계사 등을 거느렸던 대찰로서 혜철선사와 도선국사가 득도한 수행 가풍이 청정한 도량이기도 하다.

이 유서깊은 태안사에 출가 후 평생 납자로 수행만 하시던 각초스님이 주지소임을 맡아 선원장을 겸하며 수행도량으로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대중과 함께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 스님은 군부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80년대, 대학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수연처럼 그리 큰 고민 없이 자연스레 출가를 결심했다. 1982년 봄, 조계산 송광사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으나 곧 부모 손에 이끌려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지리산 화엄사를 향했다. 은사 도광스님은 '각초'라는 법명을 주셨다.

분별망상을 떠나 경계가 밝아진 스님께 우리 우바이들이 길을 물었다. 다음은 스님의 일문일답이다.

1. 신라 하대 우리나라에 선종이 전래되면서 개창되기 시작한 구산산문 중 태안사는 동리산문의 수행 전통을 잇는 대표사찰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리산문만의 구별적 특징이 있습니까?

구산산문이라는 자체가 교종과는 다른 수행이지만 동리산문인 태안사만의 다른 수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신라 불교가 교종인데 당시 당나라에서 활발하던 선종 불교를 들여오니 수도인 경주로 못 가고 경주 주변의 변방 산들에서 개산하게 된 거죠. 변방에 있으면서 지방 호족들과 결탁해 교세가 확장되는데 마침 지방 호족이던 왕건이 혁명에 성공하니 우리나라에 선종의 뿌리가 내린 것입니다. 모두 선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들입니다.

2. 태안사를 예전과 같은 수행가풍이 활활한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주지스님으로서 어떻게 사찰을 운영하고자 하시는지요?

일단 태안사에 방부를 들인 수행대중의 정진을 철저히 외호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살림이라 더 많은 대중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죠. 하지만 수행납자들이 바른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기울이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선방을 개원하여 일반인들이 선 수행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달, 1달 수행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열흘 프로그램 등 수행하기 편하도록 다양한 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제가 직접 가르치는 8시간 수행 세미나도 있습니다. 노년 참여자를 위해서는 오후에는 좀 쉴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짜고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인연 따라 주지 소임을 맡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곡성 태안사를 활활한 수행도량으로 다시 일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각선원장을 겸하며 수행대중을 지원해오고 있지요. 저는 인연이 다하면 다시 걸망을 멘 선객이 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올해 64살의 나이지만 제게 노후 걱정은 한가한 생각입니다. 게을러서 문제지, 갈 데가 없어서 문제는 아니지요.

3. 재가자들이 일상에서 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왜 일반인도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는 삶과 수행하는 삶은 어떻게 다른지요?

재가자들은 사실 연세 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와 인연 지은 것만으로도 참 다행입니. 바깥세상에서 자식 다 키우고 나이 먹어 내면의 삶 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게 참 큰 감동이죠. 저는 참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런저



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도 닦는 업을 익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이를 도업이라고 하죠.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우리는 도업을 완성해야 됩니다.

수행하는 삶과 하지 않는 삶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보통 돌아가실 때 과거 생각이나 지금 아픈 것에 부대끼거나 이렇거든요. 하지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한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죠. 내가 중심이고 그게 기준이고 무엇이든 간에 돌아올 수 있죠. 그냥 부대끼다 죽으면 그 업에 끌려가는 거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내 화두를 챙기면 항상 고요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건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 거죠. 입적할 때도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 것이죠. 아프고 돈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다가 가기 싫는데 가는 건 잡혀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죠. 이렇게 화두가 살아서 성성적적하면 그 경계가 명징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밝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럴진대 평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4. 스님은 출가와 강원 졸업 후, 주로 선승으로 사셨는데요,

삶에서 '수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승으로 얻은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죠. 저는 선방 쪽에서만 살아왔는데 제가 크게 존경받으려는 생각은 안하는데,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공부 경계가 어떤가는 몰라도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은 남들한테 이 익되는 사람, 그것이 수행이구나 싶습니다.

우리가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 나온 것이 말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은 그 당시 마음 경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말과 행동 조심하면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요. 내가 부 처면 다 부처로 보이고 내가 돼지면 다 돼지로 보이듯이 마음 잘 쓰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법당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보살님이 계시잖아요. 참 부처님이다. 마을에서 애써서 자식 키우고 사시면서 참 훌륭하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 천한 건 아니거든요. 참 애써서 잘 사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짓는대로 보이거든요. 🙏



맑고 바르게, 은은한 향기로 함께 나아가는 삶 | 김외숙 2차108인



2차 108인 김외숙 선생은 불교여성개발원 제10대 원장과 제7대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과 총장직무대리, 대한가정학회 등 3개 학회 학회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 등 사회적으로 눈부신 활동을 해 오신 분이다. 현재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몇 단체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쩌면 공식적이고 딱딱한 분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과는 달리 선생님을 만나면 언제나 가깝고 편안한, 은은한 향기가 느껴지는 건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가을비로 촉촉해진 길 위로 어둠이 내리는 10월의 저녁, 열린 송현공원 근처 청명헌(聽茗軒)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청명헌은 9차 108인 김영희 선생이 운영하는 전통찻집으로, 고가구와 맑은 차향이 가득한 곳이다. 선생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한다.

초목과 무지개, 생기가득 찬나의 고향, 그리고 가족

저는 경북 경산 남천면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자랐어요. 여름에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가면 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던 벌판의 풀들이 생기를 뿜으며 한꺼번에 일어나고 앞산 위에 무지개가 걸려 있곤 했지요. 우리 집이 맨 앞집이라 대청마루에 딱 서서 보면 담 너머로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이 잘 보였어요. 요즘 취미로 유화를 그리면서 그 특별했던 생기발랄한 분위기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린 시절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맨 먼저 할머니가 생각나요. 어릴 때 저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질 정도였어요. 뛰어난 고전적 미모와 덕망으로 주위에서도 평판이 좋으셨지요. 특히 돌아가실 때는 큰 가르침을 주고 떠나셨어요. 작은언니가 예식 날짜를 잡아둔 상태에서 편찮게 되셨어요. 예전에는 집안에 상사가 생기면 혼례를 다음 해로 미루는 관습이 있었잖아요. 당신 때문에 손녀 결혼이 미루어질까 염려하시면서 몇 달



을 염주를 돌리시며 결혼식 후에 가겠다고 지극 정성으로 기도하셨어요. 결혼식 전날 찾아온 많은 일가친척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결혼식을 마친 사실을 확인하신 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할머니께서 기도를 통해 임종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죠.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계시던 아버지는 해방 때 혼자 귀국하셨는데 유교적이고 매우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따스한 기억을 많이 남겨주셨지요. 제 위로 언니 둘과 오빠 하나,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 덕분에 막내딸로 귀여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보수적인 부모님 때문에 공교육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남동생들 어깨너머로 독학하셨지요. 워낙 충명하셔서 박식하고 현명하셨던 본인에 작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대가족을 건사하며 헌신적인 삶을 사셨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관철하는 강인함도 있으셨어요. 딸에게도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자 주장을 꺾지 않으신 덕분에 제가 아버지의 반대에도 서울로 유학 올 수 있었지요. 지금은 대학 시절 불교학생회를 함께하며 만난 남편과 90세 무렵까지 매일 불광사 새벽기도를 다니신 불심 깊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불교의 길, 감사와 행복의 길



저는 시골에 살 때 교회에 다녔어요.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교회에 가면 친구들도 모이고 재미있는 여러 활동이 많았으니까요. 일요일이면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손녀가 교회에 못 나가도록 버티고 계셨지만, 저는 마루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교회로 출행량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이사 간 후에는 교회 가는 것이 시들해졌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종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봄날, 우연히 서울대 불교학생회의 봉선사 수련회에 참가하면서부터입니다. 그날 운허스님의 법문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경험해온 세계와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뒤이은 봉은사 수련대회에서 법정스님의 인연법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를 제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후 광덕스님을 만나 스승으로 모시면서 오늘날까지 온 가족이 불교와 깊

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광덕스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지니고 있으며 불법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지요.

저는 광덕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을 생활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산스님께서 개발하신 하트스마일명상도 자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수행법들은 몸과 마음을 가볍고 평안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행이 내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쪽에 맞추어지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일상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고통을 없애는 데 있잖아요. 불편한 마음 상태의 원인을 알고 그 장애를 버리도록 해주는 일묵스님의 중도수행도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들

저는 종교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부모님과 고3 담임선생님, 석박사 지도교수님들과 남편의 응원 덕분에 서울로 진학해서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무난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평생 교직을 할 수 있었으니 행복하지요. 주위에 좋은 선후배 교수님들을 둘 수 있었으니 더할 바가 없고요.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을 맡았을 때도 많은 분이 힘을 모아주어 어려움을 견디며 뜻깊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연이나 지연보다 일을 통한 인연, 이룸하여 일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저는 늘 받은 것이 많아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자긍심과 회향의 길

제가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조계종 포교원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 많은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비 온 후 땅이 굳듯이 그러한 과정이 개발원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과제를 더욱 선명하게 챙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원 발전을 위해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전의 이사장님들과 달리 제가 원장을 할 당시의 이사장님께서 사적 감정으로 개발원을 사실과 다르게 폄하할 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포교원에서 ‘(가칭) 불교여성개발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령’을 제정해서 이사회를 5~7인으로 하고 그 중 과반수를 포교원 관계자로 구성함으로써 포교원 뜻대로 불교여성개발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깜짝 놀랐고요. 다행히 총회에서 그 규정이 통과되지 않은 사이에 개발원에서 정관을 개정한 덕분에 가까스로 개발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원이 포교원과 어려운 관계에 놓였을 때 대다수 회원들이 여성불자 리더답게 우리 조직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설립목적에 맞추어 활동하기를 원하며 뜻을 모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소중한게 남아있어요. 우리 모두 불교계의 대표적인 재가여성단체 구성원으로서 단체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한편 사회와 인류에 봉사하는 것으로 회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정리: 전영숙 8차 108인)



청로몽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만드는 작품집

흔히들 불교는 인연법이다, 한다. 작년 1월, 살던 집을 전세 놓고 청운동에 이사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불교여성개발원 앞을 지나며 건물 리모델링 과정을 지켜보았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허름하던 건물이 새 건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며 스쳐 지나던 중 건물 입구에 진열된 우바이예찬을 읽고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연구교육팀장의 보직을 맡아 일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입사한 후 내게 주어진 첫 프로젝트가 '청로몽' 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라 불안하지만 차츰 알아가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었다. '청로몽'은 청년과 시니어가 짝을 이루어 작품집(무상배포)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네 가지 목적을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첫째, 세대 간의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고, 둘째, 청년 사회적 약자(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탈북자) 및 예술인과 시니어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 시니어(전문가)의 사회 참여의 의미와 역할을 강화하며, 넷째, 대상자들에게 작품집 출간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 첫 난관은 청년들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결국 몇 차례 개강을 미루며 수요반과 토요일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드디어 7월 3일 개강하던 날, 그동안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흥분했던 기억이 새롭다.



청년과 시니어가 한 팀이 되어 예술 작품이 완성될 무렵,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전시를 위해 또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국회 전시는 대한불교진흥원 기금사업인, 전문 작가들이 참여한 '11인 11색'과 함께 진행되어 더 조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대관 역시 심사를 거쳐야 해서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는 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정각회 김명순 7차 108인과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기자의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회관 3층 제3전시관으로 장소와 개최 날짜를 확정하고, 전시 규모에 맞춰 예산을 변경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청로몽 참여자들은 평소 좋아하는 작품으로 나 소개하기로 시작해 다양한 미술 체험, 글짓기와 시 쓰기, 그리고 사진, 영상 촬영과 편집하기 등 자아 탐구와 협업, 예술 작품 창작을 위한 수업을 한 달간 하였다.

무더운 여름, 오전 10시부터 개강해 점심도 제공되었는데, 강원지원(지원장 김옥주, 2대 원장 이명숙)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보내주었고, 김순철 이사가 쌀과 야채를 보내와 7월 한 달 동안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감자와 옥수수 찌는 냄새가 건물 안에 가득했다.

이어 8, 9월에는 한 팀을 이룬 청년과 시니어가 협업하여 무려 60여 점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작하였다. 완성된 작품들은 사진, 디카詩(digital camera를 이용한 작품 위에 詩를 엮은 작품), 포토에세이, 수필, 영상 작품뿐만 아니라 회화, 민화, 한지화, 공예품,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청자도 화분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었다. 모든 작품이 혼을 불어넣은 결과이기에 실무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청년과 시니어가 한 팀이 되어 예술 작품이 완성될 무렵,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전시를 위해 또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국회 전시는 대한불교진흥원 기금사업인, 전문 작가들이 참여한 '11인 11색'과 함께 진행되어 더 조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대관 역시 심사를 거쳐야 해서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는 데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정각회 김명순 7차 108인과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기자의 도움을 받아 국회의원회관 3층 제3전시관으로 장소와 개최 날짜를 확정하고, 전시 규모에 맞춰 예산을 변경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드디어 10월 28일 오후, 모든 작품을 국회로 옮기고, 29일 아침이 밝았다. 28일 밤에 설치한 전시 광경이 어떨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여의도로 향했다. 비어있던 공간이 멋진 작품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안심이었다.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구상하신 이기향 원장님의 큰 노고가 떠올라 숙연해졌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오프닝에는 진명스님, 지상스님을 비롯한 이인자, 김애주 고문과 (사)우리는선우의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진명스님은 축사로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해 주셨고,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 국회 정각회 회장님,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무량감로회, 불교여성개발원 대경 회원들이 축하 화환과 꽃다발을 보내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그동안 다양한 내용의 기금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들었다. 특히 올해는 비전문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책을 발간하며 전시회를 여는 등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분야의 프로젝트에 최한아 11차 108인의 기여가 매우 컸다. 실무 담당자 못지 않게 기획 단계부터 전시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느라 많은 노고가 있었을 것이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꿈을 꾸며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이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끝으로 청로몽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청로몽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요청한 “나에게 청로몽이란?” 제목의 글 중에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년 이지윤

작품에 참여하며 시니어 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어른들과 소통하며 작업해 본 경험이 없어 부담감이 있었다. 그분들의 연륜과 삶의 경험은 내가 온전히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에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했다. 하지만 쓰리 '자'(강영자, 노인자, 황경자) 선생님들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려 했고, 그분들의 이야기와 삶의 지혜 속에서, 나는 따뜻함과 공감을 발견했다. 시니어 선생님들의 친절과 배려는 선생님과 나의 경험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과정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작품을 함께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경험의 무게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였다. 그분들은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희망과 평안을 발견해왔다.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큰 교훈과 위로가 되었다. 그분들이 글로 표현한 자아 탐구의 여정 속에는,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인간적인 깊이가 깃들여 있었다. 각각의 이야기가 내게 닿을 때마다, 나는 마치 그 따뜻함이 직접 전해지는 듯했다.

청년 강화경

청로몽 활동을 하기 전에는 예술이란 내면을 표출하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예술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2024 '재활용(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

최근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이면에는 쓰레기 과잉이 땅, 공기, 바다를 오염시키며 사회경제적 생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을 살리고 생태계의 그린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내 몸과 직결되는 일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런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단체, 개인들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도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여성불자108인회를 비롯한 회원과 일반 여성불자들이 작은 힘이나마 지구의 미래를 지켜보겠다는 신념으로 건전하고 지혜로운 소비 트렌드에 동참, 직접 '행동과 실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에 한 제1회 업사이클 공모전이 바로 그 출발입니다.



제2회 재활용공모전 전시장 전경

2024 '재활용(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온라인/오프라인) 공고하고 참가자를 모집한 뒤 이영주의 지도 아래 5차에 걸쳐 '업사이클링' 의미, 주제를 정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 아이디어 수집, 단계별 맞춤 지도, 디자인, 재료 수집, 재봉 기초 교육, 중간발표, 수정 지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30일 오전에는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심사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였으며, 8월 30일 오후 2시에는 수상자 발표와 시상, 상금 수여와 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30일 ~ 9월 3일(5일간) 실시한 전시장은 하수경 교수(1차 108인)가 디스플레이 총괄 기획을 맡아 창의적인 아이디어 Zone, 업사이클링 Zone(수선 또는 약간의 보정으로 만들어진 상품), Special Zone(초대회원, 최은경 조각보 작가 등)으로 전시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 9월 6일 평가회에서 행사 진행 보고 및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의 성과 및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대상
|이희숙, 7차108인
페비닐로 만든
다용도 가방



우수상
|이혜남, 11차 108인
스카프로 만든
앞치마



우수상
| 최혜경, 2차108인
오래된 한복 천으로
만든 패딩 재킷



장려상
|김진, 2차 108인
페스카트를
분해하여 만든 바지



아이디어상
|김미영, 다문화
특별상
|김옥숙, 11차 108인
자투리 천으로
만든 토시



폐현수막으로
만든 선풍기 커버,
여행 캐리어 커버

심사와 전시소감

이기향 불교여성개발원 12대 원장, (사)지혜로운여성 9대 이사장

작년에 이어 지혜아카데미에서 주관한 재활용공모전! 지난 해에도 흥미로웠지만 올해는 작품의 다양성과 높은 완성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별히 장인을 모시고 여러 차례 재활용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던 덕분에 창의성 넘치는 결과물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세 번째 공모전에서는 ESG 실천 기업에서도 탐을 내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심미성 뛰어난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작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6대 원장, (사)지혜로운여성 4대 이사장)

2023년 및 2024년 2회에 걸쳐 재활용 공모전 심사를 맡은 4대 원장 정경연입니다. 각자의 삶이 매우 바쁘실 텐데도 여성 불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가까이 재능을 발휘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대 이상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매우 신선하고 뿌듯한 전시가 되었습니다. 재활용 공모전의 실천은 우리의 공동업장을 소멸하는 참 실천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주위에 널리 알려져 청정한 지구를 되살리는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외숙 (불교여성개발원 10대 원장 (사)지혜로운여성 7대 이사장)

제2회 재활용 공모대회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출품된 61점의 작품을 보며 여성불자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와 창의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불교의 자비 정신이 환경보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심사기준으로 창의성, 실용성, 심미성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작품마다 환경 문제 해결을 향

한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선옥 (불교여성개발원 11대원장 (사)지혜로운여성 8대 이사장)

지구 환경 문제를 의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느낀 것은 먼저 제목이 재활용이 아니고 새활용이란 용어가 참신하면서도 새것이란 이미지와 결부되어 일상생활에서 크게 활용할 수있다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디자인이 새롭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 실용성, 심미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이 출품된 것도 특기할 만합니다. 이 공모전을 준비하신 이영주 대표를 비롯해 참여한 모든 회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동현 (108인회 회장)

작년에 이어 새생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출품된 61점은 작년보다 더 창의적이었고 다양하고 실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Upcycling한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여성불자 리더로서 불교의 자비정신을 생활 속에 녹여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구를 지키려는 자비 실천행의 한 축이라 보았습니다. 심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참가자와 주관해 주신 센터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진희 (지혜아카데미 전 대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서로간에 아껴 쓰는 법, 다시 쓰는 법, 더 예쁜 디자인으로 바꿔 쓰는 법. 많은 물건들이 다시 탄생하는 동안 우리는 즐겁게 웃으면서 차수간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말을 건네며 좋은 범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로 탄생되는 물건에도 관심은 있지만 우리 차수들끼리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계기로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혜아카데미 대표를 맡아 '1차 새활용 공모전' 첫 단추를 어설프게 꿰었다면, 2차 공모전(이영미 대표)은 그보다 훨씬 알차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차, 4 차~~~ 점점 더 나아질 것은 자명하며, 다음에는 작게는 종로구청, 크게는 행정안전부의 후원 사업으로까지 번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희숙 (7차 108인, 대상 수상자)

불교여성개발원에서 개최한 업사이클링 공모전에 연이어 두 번의 대상 수상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토회의 환경 관련 되살림에서 활동하면서 되살려 사용될 수 있는 주변의 많은 물건들이 쉽게 쓰고, 폐기 처리되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런 공모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일으키고, 자신의 소비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아이디어와 작업 과정을 적극 도와준 인연된 도반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비를 줄이고 환경 실천으로 지구에 해를 덜 주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10차 차수장)

새로운 가치를 재탄생시킨다는 의미인 “새활용 공모전”에 현 휴대폰 가방에 예쁘게 수놓아진 다포를 씌워서 재탄생시켰더니 새로운 가방으로 재탄생 환경을 생각하며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공모전이었습니다.

2024년 제2회 '새활용(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성공적 마무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주변에서 버려지는 소재를 찾고, 제품과 디자인 구상을 하고,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새활용'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용사가 된 듯 보람 있었습니다. 버려진 실을 모아 짠 텀블러 주머니, 장농에서 잠자던 한복을 활용한 누비재킷, 폐현수막으로 만든 선풍기 커버와 앞치마 등등 기발한 제품들을 선보였고, 많은 이들이 기꺼이 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다문화 불자들이 참여, 행사가 더 글로벌해지기도 했습니다. 두 해 행사로 생긴 수익금 2백여만 원은 아직 적은 금액이지만 지구환경을 지키는 기금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저희 업사이클 공모전은 제품 제작과 전시에 그치지 않고, 새활용 패션쇼 등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도 동참하는 지속가능한 문화행사가 되고, 나아가 종교단체를 넘어 여성환경운동을 선도하는 지구 지킴이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단순히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고 원료를 회수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버려지는 제품의 디자인을 예술성, 심미성, 기능성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고부가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창조활동을 뜻합니다.



가지요리

삼국시대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가지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계절식품으로 맛과 영양이 뛰어난 좋은 식재료입니다. 찬 성질로 열독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하며 부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으로 열이 날 때에도 소염제 역할을 하며 여름에 몸의 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지 껍질의 자주빛은 안토시아닌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 등이 있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항암, 항염 작용을 합니다.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시켜 주고 비정상적 혈전 생성을 예방하여 심장질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강력하며 이는 토마토와 브로컬리에 비해 2배 높습니다. 이 밖에 면역 기능을 높여 주며 노화 방지, 스트레스 완화, 시력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의 여러 사실들은 가지가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말린 가지는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이 강하며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지 꺾지를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구내염, 치주염, 치통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선조들은 정월 대보름에 말린 가지로 나물을 해 먹으면 다가오는 여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제철에 길게 썰어 햇볕에 말려 저장하여 1년 내 두고 먹을 수 있음)

가지는 어디서든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고 가지밥, 가지 덮밥, 가지전, 가지구이, 가지볶음, 가지나물, 가지 냉국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초가을까지 풍성한 식탁을 꾸밀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1. 가지전

지용성이 뛰어나 기름과 향이 좋은 가지는 밀가루옷을 입히지 않고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조금 센불에 구워 양념장에 찍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2. 가지밥

쌀을 씻어 불린 후 냄비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 적당하게 썬 가지를 넣고 들기름을 두르고 밥을 지은 후 뜸을 들입니다.(밥물은 다시마 우린 물이나 채수를 넣으면 좋습니다)



3. 가지 덮밥

덮밥은 각종 식재료를 볶거나(참기름, 들기름, 현미유 등으로) 간을 하고 소스는 자작하게 하여 밥 위에 얹어 먹는 일품요리입니다. 쇠고기나 해산물(새우, 전복, 패주, 장어 등), 각종 채소(양파, 파프리카, 브로컬리, 각종 버섯, 청경채, 연근, 가지, 아스파라거스 등)를 이용합니다.

쇠고기를 진간장, 마늘, 참기름으로 살짝 주물러 밀간을 하고 볶으면서 썬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간장, 참기름, 매실청, 마늘(식성에 따라 설탕)을 넣고 모든 재료의 반 정도 물을 부어 위에 구워둔 가지를 가지런히 얹고 뚜껑을 닫고 몽글하게 끓여줍니다. 자작하게 되었을 때 팽이버섯을 얹고 계란에 썬 파를 넣고 계란물을 풀어끼얹고 뚜껑 닫아 한소끔 끓입니다. 계란을 익힌 후 뚜껑을 열고 후추를 뿌려서 풍미를 더합니다.

*굽지 않은 가지는 식감이 떨어지므로 구워서 얹는 것이 좋습니다. 밥 위에 덮밥 고명을 얹고 아래의 국물을 끼얹고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완성입니다.



*양념장 만들기



넉넉히 해두면 다른 요리에도 편히 쓸 수 있습니다.
-진간장, 국간장 약간, 마늘, 풋고추(청양고추), 고춧가루 약간, 참기름, 깨소금, 배즙과 사과즙을 조금 넣으면 짠맛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양념장을 해두면) 가지밥, 가지구이 또는 콩나물무침, 찐 애고추 양념, 맨깎 싸 먹기 등 다양하게 두루 쓸 수 있습니다.

사무국 소식

○ 운영위원회, 임시이사회

9월 12일 9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 경북지원(이하 대경지원) 설립을 위한 예비모임, 청로몽 및 11인 11색 전시, 미얀마 여스님 공동체 돕기, 불교여성개발원 13대 원장, (사)지혜로운여성 10대 이사장, 추천 및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10월 17일은 오전 10시 운영위원회, 11시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사회, 오후 2시에 불교여성개발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대련 현 부원장을 차기 원장,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 행안부 공익사업 청로몽, 대한불교진흥원 공모사업 11인 11색

7월 3일, 6일, 10일, 13일, 24일, 27일 총 6일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로몽: 청년과 시니어와 함께 만드는 작품집 교육을 진행하였다. 청로몽은 시니어 33명과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그림, 사진, 시, 에세이 등 예술작품을 통해 시니어와 청년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24일은 수요일 수료식, 27일은 토요일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회의사당 3층 제3전시실에서 행안부의 청로몽과 대한불교진흥원의 11인 11색을 묶어 온빛의 여정 I,II를 전시하였다.



○ 혜충스님 서울 방문 '여래의 바다' 전시 관람

8월 10일 혜충고문스님께서 서울을 방문하여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진행중인 여래의 바다 전시를 참관하였다. 김기홍 디렉터의 상세한 설명으로 80여점 작품을 관람하였다. 여래의바다 전시회는 양경운 전 108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강영자, 김옥경, 노인자, 정은희, 조정숙 국장이 함께 관람하였다.



○ 불교여성개발원 대구경북지원(대경지원) 설립을 위한 예비모임

9월 25일 대구 청수선원에서 대경지원 설립을 위한 준

사무국 소식

비모임을 가졌다. 이기향 원장은 인사말에서 불교여성개발원 포교원 독립 후 회원들의 응집이 강화되고 있는 때에 개발원에서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왔던 대경회원님들께서 불교여성개발원의 창립 이념과 가치를 각 지역에서 전파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왔다. 라고 운을 떼며 대경회원 16명 서울에서 내려간 6명 참석자들에게 점심을 보시하였다. 이번 모임에서 이정숙(11차 108인)회원이 대표로 선출되었고, 이후 집행부를 꾸리기로 논의하였다. 대표로 선출된 이정숙 회원은 인사말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청수선원 법당을 방문하여 이수찬 중무실장을 통해 선원의 규모 및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경지원 설립을 위한 예비모임에는 최정원(경분) 9차 108인의 숨은 노고가 많았다.

이기향 원장, 남동현 108인회 회장, 원유자 부원장, 황외숙 4차 차수장, 양정희 9차 차수장, 이윤희 10차 차수장 그리고 조정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불광법회 창립 50주년 기념법회 참석

10월 13일 불광법회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으로서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을 역임한 도영 대종사스님(완주 송광사 회주)과 혜충 대종사스님(부산 감로사 회주)께서 각각 법문과 축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다는 소식에 이기향 원장, 이인자 초대원장, 김선옥 고문, 남동현 108인회장, 양경운 전 108인회장, 양정희 이사, 조정숙 국장이 잠실 불광사에서 개최된 불광법회에 다녀왔다.

행사에서 김인숙 고문은 불광사 건립에 공헌이 큰 인연으로 감사장을 받았다. 광덕스님께서 불광사를 건립하기 위해 김고문의 모친인 김미희 여사님께 시멘트 보시를 부탁드렸는데 김여사님 사후에도 불구하고 쌍용시멘트에서 김여사님 유지를 받들어 시멘트를 충분히 후원해 줌으로써 불광사 건립이 많이 수월해질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김고문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이기향 원장은 재가여성단체장 대표로서 멋진 축사를 하여 많은 불광형제들에게 불교여성개발원 이미지를 높여주었다.

참석자들은 불광법회 가족인 김외숙 고문, 최혜경 이사, 황외숙 이사 등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이기향 원장과 김인숙 고문은 불광법회 50주년을 축하하는 보시금을 전했다.

사무국 소식

○강원지원(지원장 김옥주, 7차 108인)



10월 28일 원주교도소 경내에 “국화꽃 가을 정원에서” 주제로 가을축제 한 마당에 김옥주 강원지원장이 그림 30여 점과 한지

소품들을 전시하며 엽서까지 선을 보였기에 볼거리 많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에는 원강수 원주시장도 참석하여 강원지원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전시를 축하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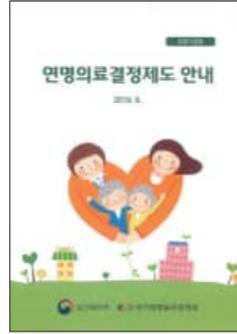
○삼보사 창건 41주년 기념법회 참석



10월 20일 이기향 원장은 육지장사 모태인 삼보사 창건 41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육지장사 회주 지원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전 이사장으로 육지장사의 모태가 되는 삼보사를

창건하여 신심과 원력으로 전법한 역사를 회고하셨다. 기념식 프로그램으로 심청가, 흥보가의 음악과 류현미 회장의 콜라겐 비빔밥 ‘맛있는 축제’로 한껏 열기를 더 하였다.

○생명존중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재, 8차 108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실시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록기관 심화과정 강좌에 13명이 신청하여 수강하였다. 그리고 영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8명이 불교여성개발원 상담사로 등록하였다.

○문광스님 초청 법회

11월 6일 문광스님을 모시고 “재가여성불자의 시대적 사명” 주제를 특강을 개최하였다. 전연숙 전 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35명의 수강생이 쌀쌀한 밤에 문광스님의 현실진단과 한국불교의 미래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적듯 어느날 통일이 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서로 화합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특강이었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회장 남동현, 6차 108인)

초가을, 또 하나의 불국토이자 수행성지 문경의 대승사를 찾다.



9월 27일, 가을 사찰순례라고는 하나 이른 감이 있었다. 가을빛이 살짝 묻어나는 초가을, 40여 명의 우바이들은 문경 산북면 사불산 대승사를 버스 1대와 차량 3대로 찾았다. 어쩌다 보니 봄에는 화엄의 땅 영주의 부석사와 양백정사를, 가을에는 관음의 땅 문경을 찾게 되었다. 대승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직지사의 말사이다. 혹독하기로 이름난 수행의 전통이 살아있는 절집,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선방 ‘대승선원’은 서슬 퍼런 젊은 남자들의 수행처였다. 장좌불와 3년의 성철스님과 청담스님, 최초 비구니 강백 묘엄스님, 밥 한 덩이와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깨달았다는 법전스님... 산내 암자로 윤필암과 묘적암이 있다.

순례 일행은 오전 대웅전에서 법회를 마치고 주지 일군스님께 법문을 들었다. 대승사의 목각 아미타여래설법상을 중심으로한 불교문화적 의미였다. 점심 공양 후 대승선원을 찾았다.

대승선원에는 ‘천강사불 지용쌍련(天降四佛 地聳雙蓮)’이란 현판이 붙어있다. 이는 창건설화와 관련된 오랜 내력으로 하늘에서 네 부처님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연꽃이 짝을 지어 솟았다는 뜻이다. 『삼국유사』 기록에

는 진평왕 9년(587) 네 면에 불상이 새겨진 바위가 산 정상에 내려앉으니 사불산(四佛山)이다. 소문을 듣고 왕이 와서 보고 예배드린 후 대승사를 창건하고, ‘묘법연화경’을 외는 비구를 청하여 주지를 삼으니 사면불을 받들고 향불이 끊이지 않았다. 주지가 입적하자 무덤에서 쌍련이 피어났다고 한다. 쌍련선원이란 이름을 짐작케 하는데, 지금의 대승선원이다. 한 쌍의 연꽃은 대웅전의 월대 우측에 곱게 새겨져 있다.

대승사 곳곳에는 고려말 고승 나옹선사(1320~1376)와 연관된 곳이 많다. 지금의 영덕에서 태어난 선사는 20세에 이곳 묘적암의 요연선사를 찾아 출가했다. 묘적암에는 나옹화상의 진영(1803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08호)과 암자 윤필암이 그것이다. 나옹선사 입적 후 사리를 모시기 위해 절을 세웠는데, 행장기는 목은 이색이 썼고, 이색은 기문(記文)을 쓰고 받는 글 값인 ‘윤필(潤筆)’을 받지 않고 암자를 짓는데 시주했기에 불은 이름이라 한다.

주지스님 법문의 주를 이루었던 대웅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제321호)은 조선 후기에 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현재 7점 정도가 남아있다. 규모나 조각 양식상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스토리도 재밌다. 이야기인즉 철종 13년(1862) 대승사에 큰 화재로 법당이 불타 없어지자 새로 법당을 짓고 당시 폐찰 상태로 방치된 부석사 무량수전의 후불 목각탱을 옮겨다 놓았다. 그 뒤 부석사에서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했다. 결국 대승사는 목각탱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부석사 조사당(창건주 의상대사 영정이 모셔짐)의



산하기관 센터 소식



수리비용을 대기로 합의한다. 당시 두 절 사이에 오간 문서 4점은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그중 합의서에 해당하는 완의(完議)도 있다.

이어 찾은 윤필암은 잘 가꾸어 놓은 정원처럼 아름답고 정갈했다. 주지 현주스님의 모습처럼 맑고 시원했다. 윤필암 건물 오른편 높음직하게 사불전이 자리하고 있다. 사불전은 부처님이 별도로 모시지 않았다. 전각 너머 멀리 바위 벼랑 끝에 있는 사불이 산 전체를 절집으로 삼은 '불단(佛壇)'에 모셔져 있음이다. 각자 소구소망의 염원을 담아 참배 후 모두 다실에 모였다. 현주스님 덕담과 차! 멀리 가까이 시원한 풍광이 다실에서의 차담을 더욱 깊게 한다. 갈 길이 멀기에 아쉬운 발길을 내리었다. 김룡사를 한 바퀴 돌아 서울로 향했다.

순례를 더욱 따뜻하게 해주셨던 감사함을 빼놓을 수 없다.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신 대구에서 온 최나경님, 항상 떡을 보시해 주시는 이순이님과 현숙희의 저녁 공양, 노인자님의 햇호두, 그리고 현금 보시를 해주신 여러 회원님들, '참여가 보시다'를 실천해주셨기에 가을 사찰순례가 정겹고 아름다웠다.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9월 5일 108인회 차수장 및 차수 임원들이 참석하는 9월 임원회의를 마하실에서 개최하였다. 9.27일 추계 사찰순례를 문경 대승사, 윤필암, 김룡사 계획을 확정짓고 각 차수에게 홍보하기로 하였다. 회의 끝나고 남동현

108인회 회장 생일을 맞아 양정희 차수장이 준비한 케익과, 참석 임원들의 합창으로 남동현회장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10월 2일 개최한 10월 108인회 임원회의는 본원의 청로몽을 비롯한 여러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차수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부탁하였다.



○다문화행복가족센터(센터장 노인자,5차 108인)



9월 8일 다문화 행복가족센터 법회에는 한부모 가족 모임 5명과 함께 건강밥상지킴센터 최혜경 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만두빚기를 실시하였다. 법회가 끝나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김옥숙(10차 108인) 행복가족센터 봉사단원들이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던 김옥숙 회원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하는 송별식을 가져 건강하기를 기원하였다.

10월 13일 정기법회는 예천 여름 수련회에서 몸 명상을 강의 하였던 김민성(예천)대표와 함께 몸 바라보기 명상을 함께 하였다. 법회에 참석하는 행복가족센터 회원들이 반찬 하나씩 들고와서 다함께 점심공양을 하는 가족같은 분위기의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영희, 9차 108인)



9월 2일부터 백경임 교수님을 모시고 "부처님 상담법, 활용 및 실습" 강의를 총 10회 진행하였다. 수강생은 20명으로 김영희 센터장은 10회기 내내 맛있는 차로 향기를 더해주었고, 이윤희 회원은 늘 일찍 도착해 차 자리를 도와주었다. 법왕자카드 활용 및 실습은 법왕자카드를 만든 대해스님이 직접 강의실에 오시어 특강을 해주었다. 강의가 끝나고 사무실에서 준비한 건강식 점



심 공양을 함께하며 즐거운 강의를 이어갔다. 개근한 4명에게 대해스님의 책 웰빙을 선물하였다.

○지혜아카데미(대표 이영미, 6차 108인)



7월 19일 지혜아카데미 5강은 김외숙(2차 108인)교수 "의사소통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강의하였다.

8월 16일 6강은 이영주(7차 108인)이 재활용 공모전을 위한 참가자 카운슬링을 통해 출품작에 대해 조언하였다.

9월 20일 7강은 김여주(10차 108인)교수가 한시의 역사와 정감 세계에 대해 강의하고, 10월 18일 미술관 산책에는 하수경(1차 108인)이 격변의 시대, 여성 삶 예술을 전시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관



산하기관 센터 소식

람 한 후 소감나누기 시간 가졌다.

지혜아카데미에서 제2회 새활용공모전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진행하였다. 새활용공모전은 6개월간 기획과 진행을 맡아주신 이영주 이사의 각별한 노고 덕분에 개발원 고문단, 지혜아카데미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잘 진행하였다. 전시회 종료일 9월 3일 오후2시에 지혜위원, 심사위원, 수상자들이 모두 모여 새활용공모전 평가회를 가져 총수입 4,287,000원에서 지출 합계 3,209,280원으로 순수익은 1,077,720원 이었다.



○ 위즈덤합창단(단장 이호옥, 8차 10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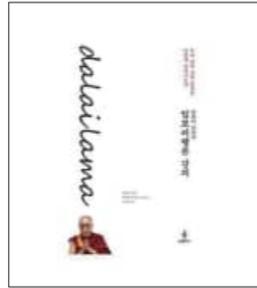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24년 불자성악가 4인 4색의 향연”이 열렸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김양희 지휘자와 위즈덤합창단원이 무대에 서서 함께 공연하였다.

남동현 108인회 회장, 정대련부원장은 수고한 위즈덤단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 날란다독서모임(반장 조명숙, 8차 108인)



10월 4일부터 11번째 독서책으로 『입보리행론』을 선정하여 주1회 목요일 저녁8시에 돌아가면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있다.

○ 역사문화답사(팀장 안영, 10차 108인)



7월 25일 역사문화답사는 문화투어를 계획하고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 서울 284에서 전시중인 're resound: 울림, 그너머'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성민선 3차 108인을 비롯해 10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회원 동정

○김영희(9차 108인)

청명현과 오페라 투란도트의 추억

10월 11일 오후 청명현(대표 김영희)에서 한—이 수교 140주년 기념 투란도트의 공연을 기념하는 차회가 열렸다. 이탈리아의 베로나에서 공수한 화려한 무대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옮겨지고 웅장한 스케일의 공연이 펼쳐지며 공연의 여운이 깊게 남았다. 베로나 오페라 가수를 위한 차회가 기획되었으나 그들의 일정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베로나에서 함께온 두란도트 기차단들을 위한 차자리만 진행하였다. 고려시대, 외교사절단이 오면 대접하던 청자 탁잔과 다병, 운학문 청자 접시를 재현하여 돌솥에 끓인 한국의 전통차와 국화향 가득한 국화화전과 국화경단을 다식으로 차림하였다. 또한 보성녹차를 보름이 잔에 담아 물따르는 소리와 온기와 향과 삭과 맛을 체험하는 차명상 시간도 가졌다. 한옥에서 우리 차와 그릇으로 한국의 생활문화를 체험한 그들은 매우 신기해 하며 기뻐하였다.



○김옥주(7차 108인)

10월 28일 원주교도소 정원에서 “국화꽃 가을 정원에서”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국화꽃 축제 시작과 함께 오후 2시 문인화 초대전 개막식을 진행하였다. 개방된 교도소 정원에서 국화꽃의 아름다움과 문인화의 예술적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신용현(9차 108인)

9월 6일 여권통문의 날 126주년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2024 국회기념행사’에 신용현님(전 20대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와 토론하였다.



○손경수(3차 108인)

올해 상반기에 손경수(김안과 의료봉사단장) 회원은 캄보디아로 의료 봉사를 다녀왔다. 로터스월드와 함께하는 이번 의료봉사에 3,600여명 환자가 방문하고 183건의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양경윤(5차 108인)

9월 4일 종로구청은 서대문 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종로복지재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양경윤 전 108인회 회장이 복지재단 이사로 위촉되었다.



회원 동정

○이영미(6차 108인)

10월1일부터 19일까지 정남 텔리아트스페이스에서 '곱슬Lee의 옷·빛 Art'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흡과 옷으로 빛고 빛을 입힌 이번 전시회는 10월 7일 오후에 개최한 오프닝에 이기향 원장과 많은 회원들이 함께 축하하였다.



○조민기(11차 108인)



9월 4일 아이를 키우고 부처님오신 날 조계사 동자승을 보내면서 느낀 친블나고 감사한 이야기를 담은 육아에세이를 출간하였다.

○하수경(1차 108인)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평창동아트 스페이스 켈리아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7월 18일 오후 5시에 개최한 오프닝에 이기향 원장과 108인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홍원숙(8차 108인)



9월 5일-7일 2024년 세계중의약학회 연합회 소화기질환 전문위원회 제 4회 이사회 교체회의 및 소화기질환 제15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9월 개최한 국제포럼에서 “중의(中醫) 명의 전문가의 핵심 치료 포럼 파트”에서 진행과 평론을 맡아 잘 회향하였다.

○사기순(4차 108인)



10월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제 54회 한국출판공로상우리 108인으로 출판문화협회 공로상 시상식에서 도서출판 민족사 주간으로 기획, 편집 부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영주(7차 108인)



2024년 FW 패션쇼를 모델 윤정 배우와 함께 촬영하였다.

○정진원(7차108인)



9월 4일 오전 10시에 교종본찰 봉선사에서 줌과 대면으로 월인석보 1권을 개강하였다. 터키 국립에르지에스대학 교환교수로 활동하다 9월 2일 영구 귀국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4. 7. 1~2024. 9. 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값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박찬재(9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송주익(9차)	30,000			
남동현	1,000,000	백경임(1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송혜진(8차)	30,000	회원회비	
원유자	800,000	백미현(10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신숨이(11차)	30,000	강희출	15,000
이윤희	600,000	사기순(4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신재영(6차)	30,000	권은량	30,000
최혜경	300,000	서혜경(1차)	1,000,000	최수영(11차) - 완납	1,000,000	안인자(9차)	40,000	김어석	20,000
피상순	3,000,000	성민선(3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양경윤(5차)	30,000	김연희	30,000
황외숙	300,000	손미영(7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김영희	30,000
		손미원(9차)	1,000,000	최혜숙(4차)	1,000,000	유진희(6차)	30,000	김정희	30,000
		손인희(9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유화영(11차)	30,000	김철엽	15,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송현주(4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윤영희(11차)	30,000	김현숙	30,000
이기향	3,000,000	신용현(9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나경윤	15,000
안수연	300,000	안수연(11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윤희영(8차)	30,000	노지숙	30,000
안기순	570,000	안 영(10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이기향(1차)	90,000	도인희	30,000
양현정	300,000	안애원(7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이수진(10차)	10,000	민선정	30,000
이명순	300,000	양숙자(5차)	1,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이시구(11차)	90,000	박말희	15,000
		양정희(9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이영희(8차)	40,000	박문숙	30,000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양채화(7차)	1,000,000			이예숙(11차)	30,000	박복순	15,000
강미중(5차)	1,000,000	어순아(9차)	1,00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		이은경(11차)	30,000	박영재	40,000
강설미(7차)	1,000,000	엄희원(10차)	1,000,000	강명희(6차)	60,000	이종용(조명숙)	30,000	박지선	30,000
권지혜(7차)	1,000,000	오용욱(3차)	1,000,000	강순주(11차)	30,000	이진형(11차)	30,000	박홍우	30,000
김경랑(10차)	1,000,000	우인순(8차)	1,000,000	강옥란(7차)	30,000	이혜숙(9차)	30,000	박희상	30,000
김귀순(7차)	1,000,000	윤정로(9차)	1,000,000	강옥희(7차)	30,000	임정애(6차)	30,000	서혜정	30,000
김미연(10차)	1,000,000	이경자(5차)	1,000,000	강희경(10차)	30,000	전영숙(8차)	30,000	선문스님	30,000
김미원(9차)	1,000,000	이계경(4차)	1,000,000	계미향(8차)	30,000	정은희(6차)	30,000	송만순	60,000
김복순(2차)	1,000,000	이두영(10차)	1,000,000	고은자(10차)	30,000	정지원(7차)	30,000	신은영(자우스님)	30,000
김선옥(6차)	1,000,000	이명숙(7차)	1,000,000	구윤임(11차)	30,000	정혜경(9차)	30,000	안미경	30,000
김숙자(3차)	1,000,000	이순이(3차)	1,000,000	권영순(11차)	30,000	조경숙(6차)	20,000	안석자	30,000
김순남(10차)	1,000,000	이연숙(1차)	1,000,000	김선연(9차)	20,000	조귀자(9차)	30,000	연명순	30,000
김승묵(3차)	1,000,000	이원표(8차)	1,000,000	김수향(11차)	30,000	조민기(11차)	30,000	왕민영	30,000
김양식(1차)	1,000,000	이윤희(10차)	1,000,000	김순자(11차)	30,000	조은수(2차)	30,000	원유자	30,000
김영순(3차)	1,000,000	이인옥(3차)	1,000,000	김양희(6차)	30,000	조성숙(6차)	30,000	유명숙	30,000
김옥숙(10차)	1,000,000	이인자(2차)	1,000,000	김 연(11차)	40,000	조현숙(10차)	30,000	윤용욱	15,000
김외숙(2차)	1,000,000	이재심(8차)	1,000,000	김영미(6차)	30,000	주찬옥(6차)	30,000	윤자현	30,000
김용란(11차)	1,000,000	이주연(6차)	1,000,000	김옥주(7차)	40,000	채진영(11차)	30,000	이강희	15,000
김용숙(7차)	1,000,000	이주현(4차)	1,000,000	김윤숙(11차)	30,000	최복란(8차)	30,000	이미선	90,000
김윤옥(7차)	1,000,000	이태영(9차)	1,000,000	김청옥(7차)	30,000	최은희(9차_부산)	30,000	이숙자	30,000
김은희(4차)	1,000,000	이현아(10차)	1,000,000	남동현(6차)	20,000	최은희(9차_제주)	30,000	이승자	30,000
김일명(7차)	1,000,000	이현주(10차)	1,000,000	남동화(3차)	30,000	최희영(7차)	30,000	이영재	30,000
김주현(8차)	1,000,000	이혜원(11차)	1,000,000	노희순(3차)	15,000	한주영(10차)	30,000	이예지	30,000
김지영(5차)	1,000,000	이화선(11차)	1,000,000	문보경(6차)	30,000	한채화(9차)	30,000	이윤구	3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임현주(7차)	1,000,000	박경현(11차)	30,000	한혜원(7차)	30,000	이윤희	30,000
김현지(7차)	1,000,000	장미숙(9차)	1,000,000	박귀원(8차)	30,000	할양자(11차)	30,000	이재명(정원일)	30,000
남상민(1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박정희(6차)	30,000	황남채(1차)	30,000	이재영	30,000
남혜경(11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박혜옥(11차)	30,000	황명자(6차)	30,000	이정애	30,000
리명자(1차)	1,000,000	정명자(8차)	1,000,000	배순자(6차)	30,000	황선화(5차)	30,000	이정호	30,000
문명하(5차)	1,000,000	정미령(8차)	1,000,000	변경이(8차)	20,000	황수남(9차)	30,000	이종열	40,000
박강자(6차)	1,000,000	정인향(11차)-1차분	500,000	서은숙(6차)	30,000	황치석(10차)	30,000	이진수(무관스님)	30,000
박경자(5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서혜선(11차)	30,000			이해남	30,000
박근연(1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손유림(11차)	30,000	여성불자108인 회비 (온라인)		이화선	30,000
박명혜(2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손인애(9차)	20,000	이문숙(11차)	120,000	임주연	30,000
박정애(8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송중옥(9차)	30,000	홍경희(2차)	30,000	장영선	30,000
박종균(6차)	1,00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4. 7. 1~2024. 9. 30)

장윤실	30,000		안해경	100,000	정별	30,000	남동현	100,000
전미옥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양정희	20,000	정해자	20,000	류지영	100,000
정명모	30,000	(불교르네상스의꿈2) 약정 잔액	원유자	500,000	최다혜	30,000	미확인	10,000
정숙인	90,000	강손주(원유자 권선)	이기향	2,008,200	한경숙	60,000	안해경	100,000
정추현	30,000		이영미	190,000	한정미	300,000	이기향	100,000
정희자	30,000	권수형(4차)	이영주	125,000	황화성	150,000	이영미	190,000
조귀자	30,000	김연수	이윤희	25,000			이해남(상금)	50,000
조민기	30,000	김용숙(7차)	이정호	90,000	108인 사찰순례(대승사)		이희숙(상금)	50,000
조여경	30,000	김인숙고문	이해남	50,000	김선옥	100,000	청진사 김실	50,000
조우상	30,000	김정희(9차)	이호성	100,000	김여주	100,000	이영주(매실청)	165,000
조정숙	40,000	김종숙	이희숙	60,000	김형인	100,000	정경연	50,000
진승연	30,000	김형숙(정진희 권선)	정대련	600,000	남동현	300,000		
진여스님	90,000	류인숙(5차)	조운예	25,000	박기옥	100,000		
최비안	30,000	민경란(9차)	최혜경	90,000	양정희	50,000		
최순진	30,000	박순(1차)	하수경	85,000	양하영	100,000		
하양자	30,000	배영숙(10차)	황수경	270,000	원유자	100,000		
한승우	40,000	손미영(7차)			어순아	100,000		
허난영	30,000	송옥순(정진희 권선)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이기향	300,000		
허영숙	30,000		권승오	90,000	이윤희	100,000		
형난옥	30,000	신병옥(신제정미스)	김경란	180,000	이해남	200,000		
혜진스님(배영철)	40,000		김선옥	150,000	최희영	100,000		
홍숙기(진여스님)	30,000	신수영(정진희 권선)	김재란	180,000	황외숙	50,000		
홍점례	15,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김옥경	180,000				
황유진	30,000	유옥준(정진희 권선)	송은주	90,000	금강경 회향보시금			
			신현옥	90,000	김선옥	290,000		
			어순아	180,000	김연수	10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윤인숙	90,000	김재란	100,000		
강인영	20,000	이영주(7차)	이호숙	180,000	김혜령	100,000		
김형숙	90,000	이영희(8차)	이희숙	90,000	남동현	100,000		
류인숙	90,000	이인자고문	정재선	180,000	박종덕	100,000		
박원자	150,000	이철호(원유자 권선)	황은복	90,000	박원자	100,000		
손미영	360,000	임주연(정진희 권선)			보우법사	1,000,000		
송옥순	90,000	임지영(정진희 권선)	고등동복지관 후원		성영란	100,000		
신수영	30,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강민경	30,000	송은주	100,000		
유옥준	90,000		권기란	40,000	안기순	100,000		
임주연	90,000	황규잠(정진희 권선)	권혜영	30,000	양정희	100,000		
조정숙	216,000		김미영	40,000	원유자	100,000		
			김민경	20,000	이윤희	10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기타후원금 온라인	김연성	90,000	이인자	100,000		
귀빈여행사(양애자)	20,000	(다문화봉사단/교정교회센터/ 우바이예찬 /재소자영지금 / 기타)	김은주	10,000	이정호	100,000		
김애주	1,000,000	귀빈여행사(양애자)	김지현	60,000	정재선	100,000		
김재란	500,000	김경선	김혜미	60,000	최현영	100,000		
김정희(9차)	200,000	김미영	김희정	400,000	황은복	100,000		
김종숙	40,000	김선옥	박영숙	90,000				
민경란(9차)	1,080,000	김옥숙	오혜진	30,000	새활용(업사이클링)후원금			
손경수	280,000	김외숙	유연서	20,000	김미영(다문화,상금)	30,000		
우리는 선우	10,000,000	김진	유영미	5,000	김선옥	100,000		
유필화	10,000,000	김혜령	윤정은	30,000	김옥숙(상금)	50,000		
이석호	100,000	남동현	이경미	10,000	김외숙	100,000		
이인자고문	900,000	박기옥	이영란	60,000	김진(상금)	30,000		
정대련(6차)	420,000	백경임	이지은	60,000	고은자	50,000		
황규잠(정진희권선)	90,000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 이후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회원가입 안내]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정희원
● 매달 1만원 이상 회비 납부인
● 활동 센터 1개 이상 선택의 기회
● 교육과 프로그램 할인 (회원활동 6개월 이상)
● 원광디지털대학 등록금 할인
● (우바이예찬) 정기발송
○ 가입문의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2

[후원 안내]

○ 불교여성개발원 국민은행 023501-04-031123
예금주 :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국민은행 023501-04-095228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계좌
농협 301-0085-6744-91
국민은행 023537-04-003040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불교여성회관)

*CMS(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실 분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